



지난 2000년 문을 연 루베 수영장 미술관은 외관은 물론 내부도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이 흐르는 50m 레인을 사이에 두고 늘어서 있는 19세기의 대리석 조각작품들을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25) 루베 수영장 미술관

루베=박진현 문화선임기자

# 물 흐르는 50m 레인따라 추억과 예술이 흐른다

프랑스 동북부의 릴 지역에서 전동열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루베 수영장 예술·산업 미술관(La Piscine Museum in Roubaix·이하 루베 수영장미술관)은 문화적 도시재생의 혁신적인 현장이다. 폐기된 산업유산과 낡은 건물들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수영장을 미술관으로 변신시킨 곳은 루베 수영장 미술관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단어 '라 피신느'(La Piscine)는 우리말로 수영장이라는 의미. 수영장이 미술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 데에는 루베시의 슬픈 과거가 배어 있다.

릴의 주변도시인 루베는 벨기에와 인접해 있는 공업지역으로 18~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 만큼 직물산업으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섬유산업의 퇴조로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한때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유럽 최고의 루베모직공장 역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대규모 방직공장 등이 들어섰던 시내 곳곳에는 빈공장과 상가들이 방치되는 등 폐허로 변해갔다. 이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은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떠나고 싶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 거주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도시의 존폐를 우려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위기를 느낀 루베시는 릴 시립대학과 공동으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는 캐리큘럼과 시설을 유지하는 한편 빈 건물과 공장들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대대적인 재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2001년 개관한 루베 수영장 미술관은 루베시가 가장 공을 들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루베 수영장은 루베시가 지난 1932년 시민들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건립한 수영장이자 공중 목욕탕이다. 형편이 어려워 샤워시설이나 목욕탕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건립된 수영장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50m의 레인으로 설계됐다. 최첨단 시설과 깨끗한 수질을 갖춘 루베 수영장은 개장과 동시에 화제를 모으면서 수십 여년 동안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

릴 출신의 건축가 릴로아 알베르 바에르(Lillois Albert Baert)는 체육시설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아르데코 양식의 우아하면서도

**1932년 개장, 노후화로 1985년 폐쇄**  
**市 철거 방침에 시민들 보존 요구**  
**지역사회 목소리 수렴 리모델링 결정**

**오르세미술관 설계자가 '재생' 떠맡아**  
**루베 역사·전통 자료, 산업유산 풍부**  
**가장 슬픈 동네서 행복한 도시 탈바꿈**

화려한 외관으로 설계해 삭막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특히 양쪽 측면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채광은 빛의 세기와 변화에 따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영장의 안전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후화로 인해 건물 곳곳이 부식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손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영장의 물탱크를 지탱하던 지하 구조물의 부식으로 더 이상 가동이 어렵다는 안전진단에 따라 루베 수영장은 50여 년의 역사를 끝으로 1985년 폐쇄됐다.

루베시가 수영장의 철거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하자 시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랜세월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던 수영장을 없애는 건 모두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며 보존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루베시는 5년간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활용방안을 수렴한 후 1990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루베 수영장의 '재생'을 떠맡은 건축가는 오르세 미술관을 설계한 장 폴 필리폰(Jean-Paul Philippon). 지난 1986년 오르세역

을 미술관(본보 11월30일자 소개)으로 되살린 경험이 있었던 그는 아르데코 건물 외관은 물론 수영장에 얽힌 시민들의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 원형을 살리는데 설계의 초점을 뒀다.

이 때문에 루베 수영장 미술관에 들어서면 마치 80여 년 전의 수영장으로 되돌아간 듯 그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복도식 샤워장은 상설전시실로, 겨울철 수영장과 목욕실에 온수를 공급하던 보일러 시설은 정원의 조형물로, 탈의실은 전시실로 각각 활용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상설 전시실 입구에 자리한 그 시절의 수영복과 장비들은 귀중한 지역의 생활사 자료다. 특히 장 폴 필리폰은 수영장의 정중앙 자리의 레인을 보존해 물이 흐르는, 말 그대로 수영장 미술관의 정체성을 극대화했다. 레인 양 옆에는 습기에도 강한 다양한 조각작품들이 늘어서 있어 관람객들은 물이 출렁거리는 레인 사이에서 두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특히 1시간 간격으로 그 시절 수영장에서 떠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와 흥미를 더한다.

루베미술관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컬렉션이다. 수영장이라는 이색적인 공간 못지 않게 루베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희귀자료와 산업유산들이 풍부하다.

국립예술선유산업고등학교에서 기증했던 '예술 산업·컬렉션'이 대표적인 것으로 1835년~1898년까지 지역의 섬유공장에서 생산됐던 각종 작품에서부터 컬렉터들로 건네 받은 프랑스 회화, 조각, 도자기, 유리공예 등 19~20세기 예술품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개관 첫해 관람객 8만 명이었던 루베 미술관은 지난해 30만여 명이 다녀갔다.

가족들과 함께 온 네덜란드 관광객 필립 베르만씨는 "루베 미술관은 릴이나 루베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조각 뿐 아니라 회화, 유리공예, 도자기 등 루베라는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컬렉션은 매우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루베수영장 모습.



옛 모습 그대로인 칸막이 샤워시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